

2008년 이후 베트남 발전모델의 변화: 혼종성의 내향적 정교화*

김용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명재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이 글은 2008~2011년 베트남의 경제위기의 원인과 성격, 이후 나타난 정치 및 발전노선상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베트남 발전모델의 근본 특징을 규명하고 그 지속성의 정치 동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발전모델은 발전국가 지향성과 지대추구적 정실 자본주의의 성격이 혼합된 혼종적 레짐이며, 시장-레닌주의 체제로서 시장 이행 과정에서 재구성된 공산당의 이념, 정치 논리, 분파투쟁상의 중첩된 모순성이 그러한 혼종성이 두드러진 발전모델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2016년 이후 국유부문에서 사유부문으로 산업발전의 중심추가 이동하는 베트남 발전모델의 변화는 기존의 혼종성이 더 심화하는 성격의 변화, 즉 혼종성의 내향적 정교화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베트남, 발전모델, 혼종적 레짐, 발전국가, 지대추구

I. 서론

2021년 1월 베트남공산당은 제13차 전국대표회의(이하 당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베트남이 중상소득(upper-middle income) 국가로 발돋움하고 공화국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고소득(high income) 선진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이한우, 2021: 384).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선언 후 지금까지 35년간 연평균 6.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베트남이 204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5,000달러 수준의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 25년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

* 본 연구는 2022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의류와 전자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노동집약적 제조공정을 유치해 산업화에 성공하며 중하소득(lower-middle income) 국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베트남이 앞으로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극복하고 고부가가치를 낚는 산업화 고도 단계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과연 아시아의 네 마리 용(Asian Tigers), 그리고 중국의 뒤를 이어 또 한 번 동아시아에서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위 질문에 대한 현시점의 전망은 상당 부분 베트남 발전모델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 있다. 베트남의 발전모델은 동아시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에 근사하는가(Beeson and Pham, 2012)? 혹은,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 등 전형적인 동아시아 발전국가와는 구분되는 나름의 독자적 발전모델이라고 한다면, 베트남의 발전모델은 최소한 중국의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가? 아니면 베트남의 발전 양상은 동남아시아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보여 준 다분히 지대 추구적(rent-seeking)이고 정실 자본주의적(crony capitalism)인 발전모델, 즉 “모호한 수준(intermediate)의 발전국가”(Doner et al., 2005) 내지 “유사품(ersatz) 발전국가”(Pempel, 2021)에 더 가까운가? 혹은 심지어 약탈적 국가의 면모가 두드러지는가?

베트남은 어떤 발전모델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동아시아 발전 국가의 제도적 특징이 열거된 리스트를 일별하며 항목별로 그 유무를 조사하거나, 기업 수준 특성 및 국가-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유형의 자본주의 모델인지를 파악하는(Walter and Zhang, 2012) 협소한 제도주의적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더 큰 틀에서 베트남 정치경제의 작동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펨펠(T. J. Pempel)의 분석틀을 빌리자면, 이 글이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 사회, 경제 패러다임 등 정치경제를 이루는 주요 요소들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며 이들이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서 베트남을 어떤 유형의 레짐(regime)으로 구성하는가(Pempel, 2021)?

이러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베트남 발전모델이 지니는 결정적 특징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베트남이,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산당 1당 지배 체제를 유지한 채 시장경제로 이행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

을 수 있다. 즉, 명목적 사회주의 체제인 베트남에서 정치경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여전히 레닌주의(Leninism) 유산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유산이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된 이념의 내용, 국가의 성격, 국가-사회 간 관계를 다른 일반적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방식으로 베트남 체제라는 하나의 전체로 구성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글은 중국(과 베트남)이 다른 유형의 레짐 특성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혼합하여 하나의 독자적 레짐을 형성한다고 파악한 펨펠(Pempel, 2021: 12), 그리고 “시장-레닌주의(market-Leninism)”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발전모델의 사회주의 체제적 성격을 이들 국가의 고유성으로 포착하려 한 런던(London, 2017)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펨펠(Pempel, 2021)은 혼종적 발전모델의 전형적 사례로 중국을 다루면서 베트남을 그와 유사한 사례라고 잠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어, 다른 많은 학자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자체에 독립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다. 중국에 대한 그의 분석 역시 제한적인데, 중국 레짐이 나타내는 혼종적 성격이 그의 분석틀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 즉 국가 기구, 국가-사회 관계, 외부 요인, 경제 패러다임에 걸쳐 다분히 임의적으로 등장할 뿐 혼종성이 그러한 방식으로 분포되어야 하는 내적 논리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즉, 그의 분석틀은 이론적(theoretical)이라기보다는 기술적(descriptive) 성격이 강하다.

한편, 런던(London, 2017)은 베트남을 중국과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고, 두 국가 간 유사성뿐 아니라 차이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발전모델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체제의 정치·사회적 구성이 레닌주의 당-국가 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의 분석은 이들 모델을 자본주의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려 하는 기존 발전모델 연구가 간과했던 이념, 국가 기구, 국가-사회 관계의 사회주의적 특성을 전면에 부각함으로써, 그러한 체제 특성이 내포하는 베트남과 중국의 지대 추구적·약탈적 속성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그의 이러한 시각은 두 국가가 보이는 그 반대 경향성, 즉 발전 지향성을 간과하게끔 한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 시장-레닌주의 체제로서 베트남과 중국은 경제발전 이념과 정치 논리에 있어 발전주의적 성향이 분명하다는 것 역시 이 글이 주장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당-국가 체제하에 시장경제 전환을 거친, 그 자체로 모순성을 내포하는 시장-레닌주의 체제로서 베트남은, 역시 그 자체로 모순적인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market economy with socialist orientation)”를 사회경제 발전노선으로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베트남 정치경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 국가와 시장, 독재와 민주 등 이념, 국가 조직, 경제구조, 정치 논리에서 모순적 양상이 중층적으로 중첩해 있는,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발전주의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대 추구적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탈적 성격을 띠기도 하는 혼종적 체제로 볼 수 있다(Pempel, 2021: 20). 하지만 베트남은 구체적 양상에서 중국과는 또 다르다. 특히 정치경제 전반을 구조화하는 당-국가가 조직되는 방식, 즉 정치제도가 작동하는 구체적 방식에서 둘 간에는 작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중앙 집권적이고 위계적이며 효율적인 중국 정치 체제와 비교해 베트남의 그것은 훨씬 분산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Malesky, 2021: 164; Vasavakul, 2019). 이로 인해 베트남의 정치경제 체제는 중국과 비교해 그 내적 모순성이 더 심하고, 발전국가적 성격보다 지대 추구적 성격이 더 강한 특징을 나타낸다(Ngo and Tarko, 2018). 정리하자면, 베트남은 모순성과 혼종성이 두드러진,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대 추구적 성향이 강한 유형의 시장-레닌주의 발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글은 먼저 2008년 이후 최근 10년간 나타난 베트남 정치경제의 변화를 분석한다. 최근 나타난 변화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베트남 발전모델의 근본 특징을 더욱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황의 분석이 베트남 발전모델의 일반적 흐름을 파악하는 하나의 구체적 사례분석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약 4년간 베트남은 심대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과거의 위기 국면에서 그러했듯이 베트남은 이 4년의 위기를 거치며 발전노선의 재조정을 수반하는 공산당 내 정치투쟁을 경험했다. 그에 따른 베트남 정치경제의 최근 변화는 대대적인 국가 부문 개혁과 사기업 주도의 산업 고도화 전략 채택으로 요약된다. 국유기업에서 사유기업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발전모델의 단절적 전환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변화의 양상을 개혁개방 시기 발전모델 진화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각에 따

르면 최근 변화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자본주의적 발전에서 파생되는 중층적 모순을 그대로 상속받는 임시방편에 가깝다. 사회주의적 공평성을 성취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효율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 인민의 이익을 대리하는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소수 지배 연합에 배타적으로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따라서 최근 베트남 발전모델의 변형은 경로 단절적 변화라기보다는, 중층적 모순들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책들이 누적되며 만들어 낸 키메라(chimera)식 혼종적 발전모델에 내국 민간 대기업의 신산업 개척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하나 더 얹은 것에 가깝다. 말하자면 그것은 혼종성의 내향적 정교화(involution)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변화다. 여기서 내향적 정교화란 “기존의 확립된 형태가 과도하게 이용되면서 세부 요소의 내향적인 과도한 정교화를 거쳐 고정”되는 양상을 말한다(Geertz; 김형준, 2012: 233). 즉, 이 글은 경제위기를 겪으며 이미 혼종적이었던 베트남 모델이 그 혼종성이 더욱 심화하며 고착화하는 방향의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베트남 발전모델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008~2011년 사이의 경제위기를 살핀다. 그리고 분파 정치를 배경으로 경제위기 이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을 살핀다. 다음 절에서는 베트남 정치경제의 혼종적 성격과 이의 진화가 단절적 경로로 접어드는 것을 제약하는 중층적 모순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순들이 발전모델에 대해 갖는 함축을 논의한다.

II. 4년의 위기

베트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의 위기를 겪었다. 거시경제적 불안정의 근원은 베트남 생산체제의 구조적 비효율성이었다. 경제위기는 사회정치적 불안정으로 번졌고 위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파 정치를 격화했다. 여기서 승리한 보수파는 발전모델을 부분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그들도 베트남 발전모델에 내재한 근원적이고 중층적인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신내각이 주도한 변화는 이미 혼종적이었던 베트남 발전모델에 새로운 요소를 하나 더한

정도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시작된 4년의 위기는 시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겹친다. 그러나 전적으로 외부 충격으로 발생했던 1997~1998년 위기 국면과 달리 이때의 위기는 내부 위기의 성격이 강했다. 당시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던 베트남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심각한 거시경제 불안을 겪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당국의 효과적 대응을 막 터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훨씬 어렵게 만들면서 경제위기가 심화하였다. 실제로 베트남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시점은 물가가 치솟기 시작한 2008년 초로 볼 수 있다(グエン·クォツ·フン[Nguyen Quoc Hung], 2013: 143). 2008년 1분기에 당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2%로, 단순 계산으로 연율을 어렵게 보면 약 36%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2008년 3월이면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와 베어스틴스(The Bear Stearns) 파산보다 6개월 이른 시점이다.

2008년 상반기 물가 앙등으로 거시경제 불안이 고조되자 베트남 정부는 거품이 잔뜩 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긴축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위험자산 회피심리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베트남 자산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어 실물 경기도 크게 위축되면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증가세도 꺾였다. 그에 따라 2009년 성장률이 2% 포인트 가까이 하락한다. 2010년에는 성장률이 반등했는데, 여기에는 심화하는 위기에 대응해 2009년부터 당국이 다시 재정과 통화의 확장정책으로 노선을 바꾼 것에 힘입은 바가 컸다. 건설 및 서비스업 경기가 살아났고 투자도 확대되었다(グエン·クォツ·フン[Nguyen Quoc Hung], 2013). 여기에 2009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등 소매 전자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덕도 있었다(주대영, 2015; Leung, 2015). 하지만 베트남 당국이 확장정책 출구전략 실행을 지연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외 유입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장정책을 지속하여 경상수지 누적 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동-달러 환율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Kalra, 2015: 17).

당국은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개입과 소폭 평가절하를 반복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외환보유고는 2008년 238억 달러에서

2009년 164억 달러, 2010년 124억 달러로 빠르게 감소했다(World Bank, 2022). 무용한 외환시장 개입은 되려 동화 가치 하락 신호로 작용했다. 경제주체들이 동화를 팔아 달러와 금을 사재기하면서 환율 하락 압력은 가중되었다(ゲン・クォツ・フン[Nguyen Quoc Hung], 2013: 154). 베트남이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속에 2010년 12월 베트남의 대표 국영 기업집단 비나신(Vinashin)의 채무불이행 소식이 전해지며 위기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한편, 환율 하락은 수입 원가를 끌어올렸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들였다. 2008년 이후 내림세였던 인플레이션은 2010년 후반부터 다시 가속을 시작하여 2011년 5월에는 연 20%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2011년 2월 당국은 평가절하와 통화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안정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Kalra, 2015). 2011년 9월부터는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환율이 안정되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당국은 금리를 낮추고 일상적인 경제운용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2008~2011년 경제위기 기간 중 두 차례의 물가 양등은 일회적 요인들이 촉발한 것처럼 보인다. 가령, 23.1%에 달했던 2008년 인플레이션의 배경에는 쌀과 원유의 국제가격 급등(FAO 2011), 그리고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폭증하여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대외 유입이 있었다. 2011년 18.7%의 인플레이션은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축적된 환율 하락 압력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일회적 요인들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 둘 사이에서는 긴축적 조치의 실기가 중대한 역할을 했다(Economic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Viet Nam and UNDP Viet Nam, 2012: 67). 2007년에는 막대한 대외 유입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불태화 개입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신용성장률은 55%라는 기록적 수치로 올랐다. 2008년에는 30% 아래로 떨어졌지만, 당국이 완화적 통화 조건을 고집하자 2009년에는 40%, 2010년에는 32%로 재차 올랐다(Kalra, 2015: 17). 만약 2007년에 충분한 불태화 개입이 있었다면, 2010년에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적시에 종료했다면, 직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훨씬 완만했을 것이다. 복수의 연구자들이 보고했듯이(Dollar, 2015: 93; Kalra, 2015: 14, 17; Fforde, 2016: 7), 2007년 대규모 불태화 개입과 2009년 출구전략은 당-국가 일각의 반대로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긴축 반대의 중심세력으로는 국유부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유부문의 긴축 반대는 투자의존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코르나이(Janos Kornai)에 따르면 사회주의 체제 생산 단위에는 투자 갈망(investment hunger)이 나타난다(Kornai, 1992: 160-163). 사회주의의 국유기업은 산출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예산계약이 연성이라 적자를 내도 파산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이들은 자원을 낭비적으로 지출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원 취득을 극대화하여 확장한다. 국유기업의 이러한 투자 갈망은 강한 관성을 보이며 시장경제 이행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산출물 판매를 보장하는 독과점 구조, 자원 낭비를 조장하는 연성 예산계약을 개혁하지 않으면, 탈공산 이행 이후에도 관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다(Kornai, 1995: 27). 그리고 베트남 국유부문은 바로 이러한 이행기 관성적 투자 갈망의 전형적 양상을 보여 준다. 베트남은 이행 초기부터 국유부문과 해외투자 부문을 양대 지주로 삼아 경제발전을 추구했다(Dapice, 2003). 공산당은 시장경제의 사회주의 지향성을 담보할 주체인 국유기업을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당-국가의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했고, 이들에 막대한 물질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쏟아부었다. 그에 따라 국유기업은 경성 예산계약을 회피할 수 있었고, 사회주의 시기에 조직된 지리적, 부문적 독과점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투자 갈망이 관성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는 국유부문의 긴축 반대를 설명한다.

베트남의 성공적인 이행은 역설적으로 투자 갈망의 거시경제적 불안정화 효과를 더욱 키웠다. 첫째, 기업집단화 정책과 국가 경제 장기고도성장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 국유기업의 크기가 커지고 자본집약도가 높아졌다(Beresford, 2008). 이 시기 베트남 정부는 중화학공업 및 기간산업 분야에서 국유기업 기업집단화를 통해 자국 산업 역량을 키우려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와 자본 등 희소자원을 국유부문에 몰아주었고, 그 결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3개의 국유 기업집단이 만들어졌다(Vu-Thanh, 2017: 89). 이러한 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국유기업의 숫자는 2000년 5,591개에서 2015년 2,836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평균 자본 규모는 132억 동에서 2,607억 동으로 무려 20배 가까이 커졌다(Phuong, 2018: 30-32).

둘째,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집단이 합작 상업은행(JSBs: joint stock banks) 지

분을 대거 인수하면서, 기업집단 내부에서 내부조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Hàng, 2013; Le et al., 2019). 당시 국유기업집단의 금융업 투자, 특히 은행업 투자가 급증했는데, 그 결과 2013년 현재 존속하던 10개 기업집단이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은행을 직접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체 민간 은행 중 44%가 국유기업집단 및 총공사의 손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당시 큰 폭으로 증가한 민간 여신 대부분을 은행 모기업인 국유기업집단에 공급해 주었다(Vu-Thanh, 2017: 105).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의 이러한 무분별한 자원 사용은 베트남 경제의 효율성을 낮추었다. 이는 2007년 이후 줄곧 6 이상을 기록한 베트남의 한계 자본 사용계수 추세에서도 확인된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자면, 고도 성장기 대만은 2.7, 한국은 3이었고, 2000년대 전반 중국은 4였으며, 전후 세계 평균은 3, 아세안 중고소득 국가 평균은 약 4 정도다(Economic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Viet Nam and UNDP Viet Nam, 2012: 80; OECD, 2014). 베트남의 자본 사용 비효율성이 비교적로도, 절대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총요소생산성의 GDP 성장 기여도는 5% 미만으로 감소하고 자본투입의 기여도가 75%를 상회할 정도로 급상승한 점 역시 이 시기 베트남이 효율이 낮은 방식의 자본투입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했음을 보여 준다(Phuong, 2018: 30-32).

대형화한 국유기업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됐지만, 결과는 대실패였다. 국내 총투자에서 사유 부문 대비 국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에서 2003년까지 최소 1.5배에서 최대 2.6배에 달했고, 2004년 이후에도 2017년 이전까지는 국유 부문 투자가 사유 부문보다 1.2배까지 많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두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대적 크기를 보면 전자가 후자와 비교해 최대 80%, 작을 때는 65%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국유부문에 자본 풀림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Tổng Cục Thống Kê, 2022). 하지만 국영기업은 대부분 내수 독점에서 비롯되는 지대 나눠 먹기에 열을 올렸을 뿐 국가 대표기업이 되기 위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경영 현대화 등의 노력은 등한시켰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이들은 손쉽게 얻은 토지와 은행 여신으로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며 당시 자산시장 거품 형성에 일조했다. 2008년 자산시장이 붕괴하고 자본의 해외 조달이 막히자 이들의 심각한 차입 부실 경영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0년 국유 조선기업 비나신의 44억 달러 부도 사태는 당시 베트남 정부의 국유기

업 주도의 산업 심화 전략이 실패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이한우, 2013: 146; 김용균, 2021: 203).

산출량 증가분이 투자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된다. 실제 2004~2013년 사이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았다. 이 기간 기저 인플레이션율은 6.5%에서 9.2% 사이에서 대체로 형성됐다. 2004년 이전과 2013년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대략 3.5% 정도인 것과 대비된다(World Bank, 2022).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도 생산체제의 비효율성에 따른 기저 인플레이션율 인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2008년 현실화한 경제위기의 근원인 베트남 발전모델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공산당도 구조적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2012년에 발표된 국회 경제위원회(Ủy ban Kinh tế của Quốc hội)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생산체제의 비효율로 말미암아 총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서, 총수요 견인을 시도하면 곧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Economic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Viet Nam and UNDP Viet Nam, 2012: 86).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일회적 요인들과 결합한 결과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의 위기였다.

경제위기의 여파는 정치 사회적 상흔을 남겼다. 첫째, 17년 만의 물가 앙등은 노동자 실질임금을 낮추어 파업을 자극했다. 위기 동안 살랭이 파업(wildcat strikes)이 급격히 증가했다(채수홍 2013). 물가가 솟구친 2008년과 2011년 전후로 전국적으로 파업의 발생 역시 폭증하며 인플레이션율과 파업 건수 추세가 강하게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다(Chi and van den Broek, 2013). 물가 폭증과 살랭이 파업은 대중들에게 낯선 일자리의 형태로 경제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1당 지배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신호였다.

둘째, 2010년 비나신 채무불이행을 시작으로, 국유기업과 합작 상업은행의 추문들이 불거졌다. 언론은 이 추문들을 열광적으로 취재했다. 보도를 통해 국유기업과 은행들의 부패와 비리가 널리 알려졌다. 방만한 국유기업과 부패한 은행들의 잇따른 추문은 당내 분파 갈등을 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Thành, 2019: 20).

분파 갈등의 징조는 2011년 제11차 당대회 직전부터 나타났다. 1당 체제의 비밀주의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극히 드물지만, 간접적인 정황 증거는 매우

풍부하다. 제11차 당대회 주요직위 인선 결과는 관례와 달리 직전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공표된 결과는 세간의 예측과 달랐다. 두 가지 정황 증거는 차기 인선에 대한 분파 간 합의가 어려웠음을 시사한다(이한우 2011: 119-120). 2012년부터는 진영 간 알력 다툼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부빙(Alexander Vuving)은 이 시기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갈등이 엿보이는 사건들을 나열한다(Vuving, 2013: 332-334). 당 국가 최상부는 부패 기업인들의 체포를 두고 여러 차례 분열상을 노출했다. 제11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 반부패운영위원회(Ban Chi dao Trung ương về phòng, chống tham nhũng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지휘선이 총리에서 당 총비서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응우옌푸쑹 총비서는 훗날 자신을 특징짓게 될 반부패 사정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직후의 11기 6중전회에서는 정치국이 제안한 응우옌떤중 당시 총리 징계안이 부결된다. 중 총리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지지를 확인해 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중 총리는 2016년 제12차 당대회에서 상대 분파의 제도적 책략으로 축출된다. 이로써 5년을 끌어 온 분파 갈등이 마무리되었다.

2016년 제12차 당대회에서 부상한 세력은 세간에서 보수파로 불린다. 일부 베트남 관찰자들은 15년 만에 복권한 보수파가 개혁의 역전을 기도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Sakata, 2020: 307). 그러나 이념적 표지는 실제 정책 기조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제12기 지도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대외 경제개방 유지, 해외직접투자 부문이 주도하는 수출지향 산업화 지속, 시장 기반 제도 정비, 각종 양자 및 다자간 투자 및 무역협정 확대 등이다.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측면에서는 개혁파보다 더 시장 지향적이다. 특히 발전모델에 관련해서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III. 위기 이후 발전모델의 재편

제12기 지도부로 올라선 세칭 보수파는 발전모델에 관련하여 3가지 중대한 변화를 단행했다. 국유부문에 대한 자원 공급을 축소했고, 국유부문 관리 감독 및 주식화 체계를 개편했으며, 사유 부문 육성책을 도입했다.

첫째, 신용기관, 재정, 채무 영역에서 긴축적 조치로 국유기업에 자원 공급을 축소했다. 보수파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당-국가 기구를 동원해 2012년부터 은행권에 대대적인 반부패 작업을 벌였다. 대형 은행 고위 간부 10여 명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Hoàn and Lê, 2018; 백용훈·이한우, 2020). 그리고 은행권 자산 건전화와 통폐합 등 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했다(Phuong, 2014). 또한 부실 대출에 악용되었던 상호출자 연결을 감축했다. 이로써 2012년부터 6년간 은행 상호 간 교차 소유권 연결은 7개에서 2개로, 은행과 국유기업 간 교차 소유권 연결은 56개에서 2개로 감소했다(Anh, 2018). 이 같은 조치는 '4년의 위기' 직전과 같은 무분별한 신용확장을 제약했다. 은행권 반부패 사정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신용 호황 안정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긴축적 재정 운용을 개시했고, 엄격한 채무관리체계를 도입했다. 우선, 정부는 2016년부터 국내총생산 대비 세출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 2년 뒤에는 2005년 수준으로 낮추었다. 2008년 이후 내내 확장으로 기울어 있던 재정정책의 추를 7년 만에 긴축으로 돌린 것이다. 다음으로, 당 국가는 채무축소를 목표로 체계적 채무관리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국가채무한도를 설정했고, 2017년에는 공공채무관리법을 개정했다(20/2017/QH14). 개정 공공채무관리법은 기존에 재무부와 계획투자부, 그리고 중앙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공공채무 관리 책임을 재무부로 일원화하고(竹山淑乃, 2018: 5), 정부보증 국유기업채무 등 우발채무도 공공채무에 산입하기로 했으며(淺田英克, 2020: 3-4), 국유기업 채무불이행 시 파산처리 원칙을 명문화했다(竹山淑乃, 2018: 5). 이와 별개로 당-국가는 2017년부터 국유기업 신규 차입에 정부보증을 중단했다(竹山淑乃, 2018: 5). 당과 국가의 강력한 채무감축 조치에 따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중이 2016년 47.6%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해 2019년 43.6%까지 낮아졌다(IME, 2021). 이는 특히 국유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부보증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전자는 2015년 GDP 대비 10.9%에서 2019년 6.7%로 40% 가까이 줄었고, 후자는 1.8%에서 0.7%로 같은 기간 감소율이 60%에 이르렀다(Hùng, 2021). 이 같은 신용기관, 재정, 채무 영역에서 긴축적 조치로 비효율적 국유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이 감소했고, 물가상승률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3%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둘째, 중앙 집권적 국유기업 관리·감독체제를 도입하여 감시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중앙정부가 국유기업 주식매각(divestment)에 재정적 유인을 갖도록 주식화 기업 지분매각대금 관리 제도를 개편했다. 제12기 지도부는 2018년 9월에 이른바 ‘슈퍼 위원회(siêu Ủy ban)’로 불리는 국유기업국가자본관리위원회(Ủy Ban Quản Lý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를 신설했다. 본래 국유기업과 합작기업 국가자본의 소유권과 통제권은 국가자본투자경영총공사(Tổng công ty Đầu tư và Kinh doanh Vốn Nhà nước), 중앙정부 주관부처와 성급 지방정부 등으로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런 식의 분권적 국유기업 관리체제에서는 정보 비대칭 수준과 감시의 복잡성이 높다. 각 관리기관의 기회주의적 지대추구에 따른 국유기업의 낭비적 자원 소모를 제어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국유기업과 합작기업 국가자본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이전받아 행사하고 있다(Sakata, 2020).

또한, 제12기 지도부는 중앙정부가 국유기업 매각에 재정적 유인을 갖도록 주식매각 대금 관리체계를 바꾸었다. 제12기 지도부는 2014년에 발표된 국유기업 주식화 계획을 재검토한 뒤 137개 주식화 예정 국유기업 목록을 다시 확정하여 발표했고, 이 목록을 기반으로 국유기업별 지분매각계획을 수시로 공표했다(竹山淑乃, 2018). 2016년에는 국유기업 매각대금의 국가 예산 산입 근거를 마련했다. 보통 국유기업 지분 매각대금은 국유기업발전배치지원기금(Quỹ Hỗ trợ sắp xếp và phát triển doanh nghiệp)으로 이체되는데, 이 기금액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 산입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2016년 30조 동의 매각대금이 포함되기 시작해 이후 매년 50~65조 동의 금액이 국가 재정에 더해졌다(Trang, 2020). 이어서 2017년에는 해당 기금의 관할권을 국가자본투자경영총공사에서 재무부로 변경했고, 2021년에는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국유기업 매각대금을 국가 예산으로 직접 계상할 것을 천명한다(Bôn, 2020).

정리하자면, 당 국가는 국유기업 매각대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국유기업 주식 매각대금을 국가 예산으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에 국유기업 개혁의 재정적 유인을 부여했다. 재정적 유인의 효과성은 매각 성과로 짐작할 수 있다. 주식화를 단행한 국유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08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4개였다. 그런데 매각 국가자본의 가치는 2016~

2019년 기간에 205조 동을 기록하며 전 시기의 189조 동을 앞질렀다(Vân and Hải, 2020). 이전까지 공산당은 국유기업 민영화에 대해 “큰 것은 두고 작은 것은 보낸다”(UNDP Viet Nam, 2006: 6)는 사소취대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런 만큼 대형 국유기업 지분매각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유기업 개혁 추세를 보면, 공공서비스 기업(public utility)을 제외하면 대형 국유기업이라도 지분매각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팎으로 박한 평가를 받는 국유기업 개혁정책이지만, 적어도 제12기 지도부가 개혁의 유인구조를 재설정 한 뒤로는 실질적 진전을 보였다.

셋째, 민간 부문 육성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유기업 육성, 내국 대형 사유기업의 ‘선도집단(séu đầu đàn)’화, 민간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국가는 2016년 이후 “성장모델의 전환(dổi mới mô hình tăng trưởng)”을 내세우면서(World Bank, 2016: 12), 사유 부문 기업활동 수월성 개선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2016년 정부의결 19호(19-2016/NQ-CP)는, 기업활동 수월성 개선,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 가용성 확보, 투자자 보호 수준 제고, 조세 감면, 인허가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을 각 급에 지시하면서, 과거와 같이 추상적인 당위를 나열하는 대신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의 기업 수월성 지표에 기초한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해 정부의결 35호(35-2016/NQ-CP)는 2020년까지 계속기업, 즉 당해 연도 산출 실적이 있는 실제 영업 중인 기업 수를 현행 50만 개에서 100만 개로 증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9년 총리결정 1362호(1362-2019/QĐ-TTg)에서는 계속기업의 수를 2025년에는 150만 개, 2030년에는 200만 개로 증대한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그리고 실제 비국가 부문의 확장추세를 보면, 비록 공언한 수치에는 못 미치지만, 2016년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연 성장률이 2016년 5.6%에서 3년 연속 높아져 2019년에는 9.3%에 달했다(Huyén and Lê, 2021: 1869).

결정적인 변화는 대형 내국 사유 자본의 부상이다. 대형 민간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도는 증가 추세다. 한 베트남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기간 중 베트남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민간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1.8%로, 국가 경제 성장률의 3배를 넘는다(Hiên et al., 2021: 45). 2019년 기준으로 베트남증권거래소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 기업 29개 중 9개가 사유

기업인데, 이들 9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1,200조 동으로 29개 기업 시가총액 총계에서 44%를 차지한다(Công and Thu, 2019).

대형 내국 사유 자본 탄생의 계기는 4년의 위기를 전후한 시기 부동산과 은행 부문의 활황이다(An, 2018). 관련하여 끼엔(Nguyễn Đức Kiên) 국회 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장기적 발전에 관심을 가진 베트남 기업들은 거의 없고 주로 ‘라면 끓여 먹듯이’ 성장하는데, …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 중 과학기술로 일어난 기업은 거의 없고 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영역에서 발달했다(An 2018)”라고 논평했다. 내국 사유 자본의 부동산업 기반 성장은 정치적 연결성을 암시한다. 베트남에서 토지는 전 인민의 소유이자 인민의 집단적 소유를 대리하는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이다(Lan, 2021).

2016년 이후 제12기 지도부는 급격히 성장한 대형 내국 사유 자본을 경제의 내국화와 고도화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본래 경제 내국화와 고도화는 국유기업의 배타적 역할이었다. 대형 내국 사유 자본이 “경제의 선도집단(sếu đầu đàn)”으로 부상하며 국유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Huòng, 2020: 14). 당국은 기존에 국유기업이 독식하던 초대형 사회기반시설 건설 투자의 문호를 개방하여 내국 대형 사유 자본을 참여를 허용했다. 그리고 기술산업 및 중공업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시작했다.

먼저, 대형 내국 사유 자본은 번돈 국제공항(Sân bay quốc tế Vân Đồn), 데오까 터널(hầm đường bộ Đèo Cà),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cao tốc Hà Nội - Hải Phòng), 바익당 대교(cầu Bạch Đằng)과 같이, 과거 국유기업만 수행할 수 있었던 수십 조 동 규모의 국가 중요프로젝트(dự án quan trọng quốc gia)에 참여했다(Công and Thu, 2019). 최근에는 송·변전 설비와 같은, 국유 공익기업 독점 사업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Bàng, 2020).

다음으로 기술산업 및 중공업 부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국제 소송까지 야기했던 비나선 파산 사태 이후 당 국가는 국유기업에 제조업 고도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Sakata, 2020; Thành, 2019: 21). 대신 제12기 지도부는 대형 내국 사유 자본에 고부가가치 제조업 진출을 요청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령, 정부는 2016~2018년 사이에 3개의 철강 셰이프가드를 선언하면서 철강업계에 안락한 환경을 조성했고, 여기에서 업계 1위 기업이자 사

유기업인 호아팻그룹(Tập đoàn Hòa Phát)은 막대한 투자로 일관제철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중요한 사례는 빈그룹(Vingroup)의 완성차제조 프로젝트일 것이다(Hiep, 2019). 자동차 산업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유치산업이다(Hansen, 2016). 제조업의 정수라 일컬어질 정도로 직간접 고용인구, 자원사용량, 전후방 연계, 생산모델 진화 등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 베트남도 자동차 산업을 산업화의 필연적 단계로 인식하고 2000년대 들어 내국 자본의 자동차 산업 진흥을 시도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었다(Hansen, 2016). 빈그룹의 완성차 사업 속도는 전무후무한 수준이었다. 21개월 만에 공장을 건립하고(Reed, 2019) 이후 11개월 만에 첫 번째 완성차를 출고했다(Huông, 2020).

신속한 전개에 당 국가의 지원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빈그룹 완성차제조 자회사 빈패스트(VinFast)는, 법인세 4년 면세 이후 9년간 기준세율의 절반인 10% 적용, 소재지 가공구 내 부품 수입 및 완성차 수출 관세 면세, 소재지 가공구 내 피고용자 개인 소득세 면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면세, 토지 및 공유수면 사용료 면제 등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받았다(Tạp chí Diễn đàn Doanh nghiệp[기업포럼 잡지], 2018). 그뿐만 아니라, 최근 수입 자동차 비관세 장벽 신설, 양대 도시 내연기관 오토바이 금지 예고와 같은 교통-환경 정책 등도, 빈 그룹의 완성차 사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Reed 2019). 관련하여, 투이(Bà Lê Thị Thu Thủy) 빈그룹 부사장이자 빈패스트 사장이 공개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은 정부가 민간 부문 주도성을 지지하는 시기였고, 그 점에서 회사는 운이 좋았다.”라고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Reed, 2019).

내국 유치산업 육성의 선두에 선 호아팻그룹과 빈그룹의 사례를 두고, 한 베트남의 민간 언론은 사유기업 발전에 관한 “외국자본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도 할 수 있다(Nước ngoài làm được thì doanh nhân Việt cũng làm được)” 제호의 특집 기사를 통해 사유 자본이 국가 경제 건설을 이끄는 시대가 왔다고 논평했다(Công and Thu, 2019). 사카타(Sakata Shozo)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국가대표기업(national champion) 육성 노선이 기존에 비효율적인 국유부문 중심에서 효율적인 사유 부문 중심으로 실용화했다고 해석한다(Sakata, 2020: 313-314). 타이(Nguyễn Xuân Thành)은 베트남 대형 내국 사유 자본의 본질이 정치적 연결로 부를 축적하

고 방어하는 과두재벌(oligarchy)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년 이후 베트남 과두재벌이 부의 방어(defense of wealth) 전술 차원에서 국유기업의 산업정책 도구 역할을 자발적으로 이어받았다고 평가했다(Thành, 2019: 22). 어느 해석이든 2016년 이후 베트남에서 대형 내국 사유 자본이 내국 산업 고도화의 첨병으로 등극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변화는 혁신 스타트업(doanh nghiệp khởi nghiệp sáng tạo) 육성정책이다. 제12기 지도부는 2016년 총리결정 844호(844-2016/QĐ-TTg)로 기술혁신 창업 지원을 공식화하며 2025년까지 2,000개 프로젝트, 600개의 인큐베이팅 기업, 100개의 엑셀러레이팅 기업을 목표로 잡았다. 법령에서는 지적 재산권 및 경영 측면 자문, 인큐베이션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무공간 등 현물지원, 연례 기술창업 박람회(TechFest) 조직 및 시행 등을 규정했다. 총리결정 844호에 따라 과학기술부(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는 산하에 관련 업무를 총괄 전담할 '844 사무국'을 설치했다. 또한, 해당 기업들에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을 적용하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조세 우대를 구체화했고, 북부와 중부와 남부에 각 1개소씩 민관협력모델(PPP)에 따라 운영되는 창업 인큐베이션 센터를 설치했다. 선진 산업국의 혁신생태계 조성정책에 비교하면 기초적인 조치에 불과하지만, 성과는 높았다. 제12기 지도부의 혁신 스타트업 정책은 모모(MoMo), 브이엔페이(VNPay), 브이엔지(VNG) 등 기업가치 200조 동 이상 유니콘 기업 3개, 띠끼(Tiki), 스카이마비스(Sky Mavis) 등 기업가치 20조 동 이상 기업 11개의 탄생이라는 성과를 기록했다(Anh, 2021).

IV. 베트남 발전모델의 성격, 그리고 그 변화와 지속

4년의 위기의 원인, 그리고 그것이 촉발한 당내 파벌투쟁과 이후 정책 변화 분석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정치경제가 작동하는 근본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베트남 발전모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혼종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Pempel, 2021: 12).

4년의 위기를 낳은 베트남 발전모델의 구조적 취약성, 즉 비효율적인 자본투

입형 성장은 공산당이 추구한 국유기업 중심 내국 산업화 심화 전략의 산물이었다. 베트남 국가는 주도적으로 자국 경제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행 체계를 마련해 경제주체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전략 산업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도록 제도적·금융적 지원을 몰아주었다. 이 점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왜곡시킴(got some prices wrong)”으로써 시장 행위자들이 단기 시장 신호를 따르기보다 중장기 목표를 추구하게 했다는 점에서 발전국가 전형성의 일단을 보여 준다(Wade, 1990: 29). 즉, 베트남 국가는 근본지향에 있어 발전국가적이다.

이러한 발전국가 지향성은 사실 개혁개방 전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 속에서도 베트남 정치경제의 근저에 흐르는 주요한 조류였다. 애초에 공산당이 도이머이를 선언하며 개혁개방에 길로 나서도록 추동한 원동력도 이대로 가다가는 베트남이 영원히 후진국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뒤쳐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Elliott, 2012). 이후 공산당은 “현대 산업국가(modern industrialized nation)” 건설을 사회경제 발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며 시장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원조와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성공적으로 산업화의 초석을 놓았다. 군부 소유 이동통신 기업 비엠텔(Viettel)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까지 갖추 정도로 급격히 발달한 사례는 성공적 국가자본주의 프로젝트를 예시한다(Hai and O'Donnell, 2017). 4년의 위기 이후 최근 대형 사유기업이 주도하는 선도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는 모습 역시 베트남 경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추구하는 베트남 국가의 발전국가 지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전국가 지향성은 베트남공산당이 공산당 체제의 생존을 베트남 국가의 발전과 상당 부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즉,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가 발전해야 하며, 이들에게 있어 국가의 발전은 곧 공산당 권력의 유지를 의미한다. 존재론적 위협 속의 생존 본능이 산업발전을 추동하게 되는 양상을 동아시아 발전국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구조적 배경이라고 했을 때(Doer et al., 2005), 베트남 역시 큰 틀에서 발전국가 형성의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포괄적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그에 합당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체제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은 결국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적 기반이 인민 다수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지연합(broad winning coalition)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Doner et al., 2005). 발전국가를 배태하는 넓은 지지연합의 역사적 기원은 한국, 대만 등의 경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경제 조건이었고,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이들 체제가 실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수립된 체제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Masina, 2006: 155).

베트남 국가가 발전국가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4년의 위기는 그러한 능력의 결여를 예시한다. 우선, 앞선 분석에서 지적했듯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능력 면에서 베트남은 결함을 노출했다. 특히, 핵심 기득권층인 국유기업의 협소한 이익에 당국이 포획된 모습을 보였다. 더 중요하게는 공산당이 2000년대 내국 산업 고도화 정책을 결과적으로 성공시키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전략산업을 선정해 자원을 몰아주는 발전국가의 전형적 산업정책을 추구했으나, 베트남은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정치 제도적 기반인 국가의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발휘하지 못했다(Evans, 1995).

이 점에서 베트남 발전모델의 지대 추구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산업발전을 위해 투입된 국가의 공적 자원을 국유기업 고위 간부, 은행장,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부동산 투기 등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사용했고, 이들과 결탁한 부패 간부들로 장악된 국가는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들을 감시하고 규율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국영 기업집단 비나신 파산은 실패한 국가자본주의 프로젝트와 부분 개혁의 지대 추구적 오용을 대표하는 사례이다(Pincus, 2016).

애초 베트남의 시장경제 이행이 지대 추구적 부분 개혁의 성격이 강했다. 개혁 초기 베트남의 당 간부와 국가 관료들은 공식부문에서 거저 얻다시피 조달한 희소자원을 시장에서 고가에 처분하는 식의 차익거래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했다(Fforde, 2002).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자본가화한 공산당원들은 이후 개혁과정에서도 정치 권력의 사적 전용을 통해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서 독점 이윤 기회를 선점해 막대한 사익을 챙겼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 예정지 거

주자들을 헐값 보상으로 되거시키고, 그렇게 회수한 토지를 상업 개발자에게 행정적으로 할당하여 막대한 지대를 안겨 주는 베트남 국가의 모습은 지대 추구적인 동시에 약탈적이기까지 하다(Boudreau and Labbé, 2011).

베트남에서 시장개혁이 심화하는 과정은 당-국가의 각급 기구와 부처에 이러한 지대추구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과정이었다. 2016년 이후 공산당이 부패 척결 등 대대적인 국가 부문 개혁에 나섰으나, 이것이 지대추구 행위를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그 궁극적 성과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사유 부문 중심 발전전략이 종전의 국유 부문 중심 국가독점을 사유기업 독점으로 대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유 부문과 사유 부문 사이에는 영위하는 부문이 대체로 겹치지 않고, 사유 부문 내부에서도 기업끼리 사업 부문을 주고받으며 부문별 독과점 체제를 공고히 하는 양상이다(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World Bank Group, 2021: 55). 대체로 이들 신흥 재벌이 지대추구의 핵심 원천인 부동산 개발로 자본의 본원적 축적에 성공해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이 지대 추구형 정실 자본주의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베트남이 혼종적 발전모델을 이어 가는 배경에는 도이머이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층적 모순들이 있다. 공산당 1당 체제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한 시장-레닌주의의 성격이 투영된 이러한 모순들은 혼종적 발전모델을 형성했고, 앞으로도 혼종적 발전모델의 급변을 제약할 것이다. 2016년 이후 제12기 지도부의 발전모델 재편도 이러한 모순의 논리를 반영한다.

먼저 기저에는 이념적 모순이 있다. 당이 견지해 온 이념인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자체가 지닌 모순은 발전 지향적 경제개혁의 추진을 용인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왔다. 시장경제의 발전은 국가 주도성 및 분배 형평성의 사회주의 지향성을 유지하는 속에서 추구되어야 하기에 베트남 발전모델은 시장과 국가,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의 양면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시장-국가 모순의 핵심에는 국유기업과 국가 통제 금융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국유기업은 2,500여 개로 그 수가 크게 줄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 정도에 그치고 있다(Sakata, 2020: 311; Vu-Thanh, 2014: 6). 하지만 국유기업은 여전히 자연독점 공공서비스 산업과 전매산업,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接客업, 금융업, 제조업, 농림축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업종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 국유기업은 많게는 60% 이상, 적어도 30% 이상의 순자산 점유율을 보인다(OECD, 2020). 최근 국유기업 민영화, 특히 국가 소유 지분 매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베트남공산당은 여전히 국유기업이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선도적 역할(leading roles)”을 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국가의 금융통제 역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국유 상업은행을 주식화하고 민간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시장 개혁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국가가 직간접적 주식 보유를 통해 이들 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4년의 위기를 거치면서 은행권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전체 자산에서 3대 국유 상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국유 상업은행 및 국유기업 소유 민간 은행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 지배를 통한 시장 통제권을 공산당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은 최근의 벤처캐피탈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벤처캐피탈마저 여신(credit) 중심적 성격이다. 혹자는 베트남 당-국가가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지분 중심 벤처캐피탈 모델(equity-based model) 대신에 전례가 드문 여신 중심 벤처캐피탈 모델을 추종한다고 지적한다(Klingler-Vidra, 2014). 시장경제의 정수인 혁신기업 생태계에도 당-국가의 정치적 통제가 드리워져 있는 셈이다.

요컨대, 베트남공산당이 상정하고 있는 시장경제는 결코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다. 성장과 효율을 위해서는 민간과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맡겨야 하지만 사회주의 지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유기업과 금융통제를 통해 경제운용의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 그 결과 베트남 발전모델은 한편으로는 발전 지향성을 띠지만 동시에 비효율과 지대추구가 만연한 성격을 나타낸다.

성장과 분배 간 양면성의 대표적 예시는 지방성 간 균등화 재정 이전 체계이다. 베트남은 1996년과 2002년 정부예산법 개정을 통해 재정 분권화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성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외국자본 유치와 산업화에 앞선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재정 불균등이 심화했다. 이에 대해 공산당은 특정 세입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공유세의 공유비율 조

정을 통해, 그리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내주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흑자 지방에서 적자 지방으로 재정을 이전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하였다(Uchimura and Kono, 2012). 그 결과 63개 성 정부 중 경제가 발전한 13개 성이 나머지 50개 성을 재정 보조하는 패턴이 자리를 잡게 된다(김용균, 2018: 141).

최근 베트남에서는 안일하게 설계된 지방 간 균등화 재정 이전 체계 때문에, 선도적 발전지역의 사회기반시설에 재투자되어야 할 재정 흑자가 중앙으로 이전되어 산업지역의 인프라 병목이 악화하고, 저발전지역은 중앙의 재정 이전을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Nga, 2017). 그런데도 지방성 간 균등화 재정 이전 체계는 큰 틀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63개 성의 균등 발전, 형평성 추구는 재정 이전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국가자본 인프라 투자 및 국유기업의 고정 투자의 대상 지역 선정 시 지역 간 균형 배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효율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추구하면서도 베트남공산당은 다분히 그와 배치되는 방식으로 형평과 분배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전술한 이념적 모순은 당-국가 체제의 성격에 배태되어 정치 논리의 모순을 만들어 낸다. 공산당의 권력 독점은 한편으로는 소수의 핵심 지배 연합에 배타적으로 지대를 배분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 광범위한 대중에게 경제 성장의 혜택을 가져다줌으로써 유지된다. 전자는 지대 추구적 부분 개혁, 정실 자본주의적 발전을 요구하는 반면, 후자는 포괄적 정치경제 개혁, 국가 자본주의적 발전을 요청하기에 권력 유지의 정치 논리에 긴장과 모순이 발생한다. 시장경제 개혁과 사회주의 지향성 각각이 때로는 전자의 논리를, 때로는 후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됐으며, 그 과정에서 이념적 모순성은 지속해서 강화되었다.

베트남공산당의 핵심 지배 연합은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산당 고위 간부 200인, 그리고 이들의 후견 네트워크에 연결된 핵심 기득권층을 포괄한다. 일당 독재 체제에서 공산당의 지배권력은 다른 무엇보다 이들의 결속과 지지, 그리고 충성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들의 충성은 이들에게 배타적 특권을 보장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베트남에서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은 정치 권력의 일단을 나눠 가진 이들 핵심 기득권층이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스스로 부여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 이들의 독과점적 이윤

추구 동기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이끄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들 다수는 국유기업을 비롯한 국가 부문과 연결되어 있기에 국유기업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실질적 개혁을 가로막은 강력한 유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주의 지향 이념은 이들의 집단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원되는 성격이 강하다. 동시에, 모든 지방성을 대표하고 있는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특성상 공산당 중앙의 핵심 지배 연합은 63개 각 지방의 핵심 지배 연합을 포괄하는, ‘지방 지배 연합의 연합’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사회주의적 균등 발전과 형평 이념은 이러한 성격의 지배 연합이 요구하는 지방 간 지대 배분 방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

하지만 동시에 공산당의 권력은 최종 심급으로서 다수 인민의 지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권력 유지의 이 같은 정치 논리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다수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 발전 추구를 요청한다. 이는, 한편으로, 부패를 통제하고 지대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시장개혁의 심화와 포괄적 정치 행정 개혁을 요구한다. 4년의 위기 국면에서 그랬듯이, 부분 개혁의 비효율로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사회적 위기가 심화하여 공산당의 체제 정당성이 위협에 처할 때마다 당내 개혁파는 시장경제 심화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섰다. 다른 한편, 국가의 발전이 당의 지도하에 국가가 경제 운영을 주도할 때 가능하다고 믿는 이념적 보수파는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 형평 분배 등 사회주의 지향성을 견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지적한 이념적, 정치 논리적 모순성은 ‘지배 일당 내 파벌 정치’라는 모순적 현실 정치로 실현됐다. 2000년대부터 2016년까지 베트남 당-국가 체제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은 세칭 개혁파는 특혜 배분을 매개로 느슨하게 연결된 분절적 특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시장과 국가, 성장과 분배 사이의 모순 속에서 성장한 이들이 기회주의적 사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정치 논리의 모순은 더욱 깊어졌으며, 이는 부패와 비효율, 그리고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상대적으로 국가 자본주의적 발전을 지향하며 이념을 중심으로 전국적 위계로 조직된 세칭 보수파는 당과 체제의 존립을 위해 당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 부패 세력 청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개혁을 정당화하는 논리 역시 사회주의 지향성을 견지한 채 효율적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의지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권

력 유지 역시 배타적 이익 배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베트남 발전 모델의 본질적 모순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V. 결론

베트남의 국유부문 중심 비효율적 생산체제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해 있었다. 구조적 취약성에 2000년대 중후반 국제경제적·국내 경제적 일회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베트남은 2008~2011년 4년의 위기를 겪었다. 위기는 분파 투쟁을 격화했다. 2016년 분파 투쟁에서 승리하여 제12기 당 지도부를 구성한 분파는 발전모델을 시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형했다. 국유부문 우선성을 감축하고 사유 부문 육성책을 본격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경로 단절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정치경제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레닌주의가 내포하는 중층적 모순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이념에 내재한 국가와 시장 또는 분배와 성장 사이의 모순, 혁명 전위 일당 체제 정치 논리에 내재한 지배 연합 유지와 대중지지 구축 사이의 모순, 이 모순들이 현실 정치로 표출된 지배 일당 내 분파 정치라는 모순이 있다. 베트남 정치경제의 중층적 모순은, 키메라적 혼종성을 본질로 하는 발전모델을 만들어냈고, 또한 제12기 지도부의 발전모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베트남 발전모델의 변화는 경로 단절적 변화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종래의 혼종적 양식을 과도하게 정교화함으로써 본질적 변화가 불가능하게끔 고정하는 ‘혼종성의 내향적 정교화’에 해당한다.

투고일: 2022년 6월 7일 | 심사일: 2022년 7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9일

참고문헌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2.

6. 7.).

- 기어츠, 클리퍼드(Geertz, Clifford) 저. 김형준 역. 2012. 『농업의 내향적 정교화 (Agricultural Involution: The Processe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 일조각.
- 김용균. 2018. “사성사색의 베트남 지방성 거버넌스.” 『동남아시아연구』 28권 4호, 115-159.
- _____. 2021. “베트남의 세계화 전략과 경제개혁의 정치.” 이승주 편. 『세계화 3.0과 국내정치』. 명인문화사.
- 백용훈·이한우. 2020. “베트남 2019: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대와 전방위적 숙정작업.” 『동남아시아연구』 30권 1호, 29-62.
- 이한우. 2011. “베트남에서 점진적 개혁의 지속: 제11차 공산당대회 결과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105-138.
- _____. 2013. “베트남의 국영기업 소유구조 변화와 정부-기업관계.” 『동남아시아연구』 23권 2호, 143-175.
- _____. 2021. “베트남의 정치적 보수화와 경제개혁의 지속: 제12차 및 제13차 공산당대회 분석.” 『동아연구』 40권 1호, 375-40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55854>(검색일: 2022. 6. 7.).
- 주대영. 2015. “베트남의 국제가치사슬(GVC) 거점 부상과 한국 전자업계의 대응.” 『KIET 산업경제』 10월호, 69-80.
- 채수홍. 2013. “베트남 살랭이 파업의 양상과 원인: 남부 빈즈엉(Binh Duong)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3권 3호, 1-48.
- ゲン・クオツ・フン[Nguyen Quoc Hung]. 2013. “グローバル金融危機の影響: ベトナムの場合[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베트남의 경우].” In 国宗浩三(ed.) 『グローバル金融危機と途上国経済の政策対応[글로벌 금융 위기와 개발도상국 경제의 정책적 대응]』. アジア経済研究所研究双書[아시아경제연구총서] No. 603. 日本貿易振興機構 アジア経済研究所[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 浅田英克. 2020. “ベトナムの公的債務の持続可能性について[베트남 공적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地域学研究[지역학연구]』 50(2), 259-269.
- 竹山淑乃. 2018. “国営企業改革が課題となるベトナム経済[국영기업 개혁이 과제가 된 베트남 경제].” 国際通貨研究所 Newsletter[국제통화연구소 뉴스레터], September 18.
- Anh, Văn. 2018. “Cơ Hội Xóa Bỏ Sờ Hữu Chéo, Lợi Ích Nhóm[상호출자와 부당이익을

- 제거할 기회].” *Đặc San Toàn Cảnh Ngân Hàng Việt Nam 2018*[2018년 베트남 은행 파노라마 특별판], June 11, 2018. <https://bvsc.com.vn/News/2018611/586888/co-hoi-xoa-bo-so-huu-cheo-loi-ich-nhom.aspx>(검색일: 2022. 6. 7.).
- _____. 2021. “Đầu tư cho khởi nghiệp sáng tạo tại Việt Nam tăng kỷ lục trong năm 2021[2021년 베트남 혁신창업 투자가 사상 최대로 증가].” *Báo Điện tử Đà Nẵng nói Việt Nam*[전자신문 베트남의 소리], December 14, 2021. <https://vov.vn/kinh-te/khoi-nghiep/dau-tu-cho-khoi-nghiep-sang-tao-tai-viet-nam-tang-ky-luc-trong-nam-2021-911573.vov>(검색일: 2022. 6. 7.).
- An Tâm. 2018. “Cách nào giúp doanh nghiệp tư nhân lớn mạnh?[사유기업의 성장을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Tap chí Điện tử CafeLand*[전자잡지 카페랜드], May 10, 2018. <https://cafeland.vn/phan-tich/cach-nao-giup-doanh-nghiep-tu-nhan-lon-manh-75995.html>(검색일: 2022. 6. 7.).
- Bàng, Lương. 2020. “Khi Doanh Nghiệp Tư Nhân Ngày Càng Lớn Mạnh[s유기업이 나날이 강해질 때].” *VietnamNet*, November 14, 2020. <https://vietnamnet.vn/khi-doanh-nghiep-tu-nhan-ngay-cang-lon-manh-688296.html>(검색일: 2022. 6. 7.).
- Beeson, Mark and Hung Hung Pham. 2012. “Developmentalism with Vietnamese Characteristics: The Persistence of State-Led Development in 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2(4), 539-559.
- Beresford, Melanie. 2008. “Doi Moi in Review: The Challenges of Building Market Socialism in Vietna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2), 221-243.
- Bôn Mạnh. 2020. “‘Xóa sổ’ Quỹ Hỗ trợ sắp xếp và phát triển doanh nghiệp[국유기업발전배치지원기금의 폐지].” *Báo Đầu Tư Online*[투자지 온라인], June 2, 2020. <https://baodautu.vn/xoa-so-quy-ho-tro-sap-xep-va-phan-trien-doanh-nghiep-d123411.html>(검색일: 2022. 6. 7.).
- Boudreau, Julie-Anne and Danielle Labbé. 2011. “Les nouvelles zones urbaines à Hanoi: ruptures et continuités avec la ville.” *Cahiers de géographie du Québec* 55(154), 131-149.
- Chi, Do Quynh and Di van den Broek. 2013. “Wildcat Strikes: A Catalyst for Union Reform in Vietnam?”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5(5), 783-799.
- Công Hiếu and Thu Hoài. 2019. “Sự lớn mạnh của kinh tế tư nhân và câu chuyện phát triển Đàng[s유경제의 융성과 당발전 이야기].” *Zingnews*, October 2019.

- <https://zingnews.vn/toan-canh/kinhtetunhan.html>(검색일: 2022. 6. 7.).
- Dapice, David O. 2003. "Viet Nam's Economy: Success Story or Weird Dualism? A SWOT Analysis." UNDP Vietnam.
- Dollar, David. 2015.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중앙기통상전략연구 1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doi.org/10.2139/ssrn.2784662>(검색일: 2022. 6. 7.).
- Doner, Richard F., Bryan K. Ritchie, and Dan Slater. 2005. "Systemic Vulnerability and the Origins of Developmental States: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9(2), 327-361.
- Economic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Viet Nam, and UNDP Viet Nam. 2012. "From Macroeconomic Instability to Restructuring." The Economic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Viet Nam,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8x6r48fb0AhWZHHAKHS3PAPUQFnoECAQAQ&url=https%3A%2F%2Fwww1.undp.org%2Fcontent%2Fdam%2Fvietnam%2Fdocs%2FPublications%2FMacroeconomic%2520report%25202012-Eng.pdf&usg=AOvVaw2yxX3haeLrIFAxoFz2-YS4>(검색일: 2022. 6. 7.).
- Evans, Peter B.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AO. 2011. "The 2007-08 Rice Price Crisis: How Policies Drove up Prices and How They Can Help Stabilise the Market." *Policy Brief* 2011-1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ttps://www.fao.org/publications/card/en/c/ac5403fe-3b1b-5d2f-a6b6-65ede9fb2457/>(검색일: 2022. 6. 7.).
- Fforde, Adam. 2002. "Resourcing Conservative Transition in Vietnam: Rent Switching and Resource Appropriation." *Post-Communist Economies* 14(2), 203-226.
- _____. 2016. "Vietnam: Economic Strategy and Economic Reality."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5(2), 3-30.
- Hai, Nguyen Manh and Michael O'Donnell. 2017. "Reforming State-Owned Enterprises in Vietnam: The Contrasting Cases of Vinashin and Viettel." *Asian Perspective* 41(2), 215-37.

- Hàng, Thu. 2013. “Thực Trạng Sở Hữu Chéo Trong Hệ Thống Ngân Hàng Việt Nam Hiện Nay và Một Số Khuyến Nghị[베트남 은행 시스템의 상호출자 현황 및 권장사항].” *Tạp Chí Ngân Hàng*[은행잡지], December 23, 2013. <https://tks.edu.vn/thong-tin-khoa-hoc/chi-tiet/117/491>(검색일: 2022. 6. 7.).
- Hansen, Arve. 2016. “Driving Development? The Problems and Promises of the Car in Vietna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6(4), 551-569.
- Hiến, Trần Đắc, Trần Thị Thu Hà, Nguyễn Mạnh Quân, Nguyễn Lê Hàng, and Phùng Anh Tiến. 2021. “Phát Triển Các Tập Đoàn Đầu Tàu ở Một Số Nước [여러 국가들의 기업집단 발전과 베트남의 경험].” Số 2 - 2021. Cục Thông tin Khoa học và Công nghệ Quốc gia[국가정보통신과학기술국]. https://vista.gov.vn/vn-uploads/tong-luan/2021_03/tl2_2021.pdf(검색일: 2022. 6. 7.).
- Hiep, Le Hong. 2019. “Vietnam’s Industrialization Ambitions: The Case of Vingroup and the Automotive Industry.” *Trends in Asia 2019*, no. 2(January), vii-19.
- Hoàn Nguyễn and Lê Dương. 2018. “Trần Bắc Hà và hàng loạt ‘ông trùm’ ngân hàng vướng vòng lao lý[전박하를 비롯한 다수 은행권 거물들이 투옥될 위기].” *Báo điện tử Tiền Phong*[선봉지], November 30, 2018. <https://tienphong.vn/tran-bac-ha-va-hang-loat-ong-trum-ngan-hang-vuong-vong-lao-ly-post1075137.tpo>(검색일: 2022. 6. 7.).
- Hùng, Trần Văn. 2021. “Assessment of Vietnam’s Public Debt in the Current Period.”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Journal - Economics - Law and Management* 5(4), 1939-1947.
- Hường, Thu. 2020. “Kinh Tế Tư Nhân: Động Lực Cắt Cánh Của Nền Kinh Tế Việt Nam [사유경제: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 *Tạp Chí Con Số & Sự Kiện*[수치와 사건 잡지], February 2020.
- Huyền, Nguyễn Thanh and Minh Quyên Nũ Lê. 2021. “Private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of Some Countries and Lessons for Vietnam.”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Journal - Economics - Law and Management* 5(3), 1686-98.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World Bank Group. 2021. “Creating Markets in Vietnam.” Country Private Sector Diagnostic. World Bank Group.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1.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1: Strengthening the Credibility of Public Financ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https://www.kci.go.kr)

- 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FM(검색일: 2022. 6. 7.).
- _____. 2022.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2.” IMF.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2/April>(검색일: 2022. 6. 7.).
- Kalra, Sanjay. 2015. “Vietnam: The Global Economy and Macroeconomic Outlook.” *Journal of Southeast Asian Economies* 32(1), 11-25.
- Klingler-Vidra, Robyn. 2014. “Building a Venture Capital Market in Vietnam: Diffusion of a Neoliberal Market Strategy to a Socialist State.” *Asian Studies Review* 38(4), 582-600.
- Kornai, Já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Eliminating the Shortage Economy: A General Analysis and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s in Hungary: Part 2.” *Economics of Transition* 3(2), 149-168.
- Lan, Phạm Chi. 2021. “Doanh Nghiệp Tư Nhân: Không Thể Lớn, Không Dám Nghi Lớn! [사유기업: 성장할 수 없고, 감히 성장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 *Báo Sài Gòn Đầu Tư Tài Chính*[사이공채무투자지], March 22, 2021. <https://www.saigondautu.com.vn/doanh-nghiep-doanh-nhan/doanh-nghiep-tu-nhan-khong-the-lon-khong-dam-nghi-lon-89161.html>(검색일: 2022. 6. 7.).
- Le, Phuong Thanh, Charles Harvie, Amir Arjomandi, and James Borthwick. 2019. “Financial Liberalisation, Bank Ownership Type and Performance in a Transition Economy: The Case of Vietnam.”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57 (October): 101-182.
- Leung, Suiwah. 2015. “The Vietnamese Economy: Seven Year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ournal of Southeast Asian Economies* 32(1), 1-10.
- London, Jonathan. 2017. “Varieties of States, Varieties of Political Economy: China, Vietnam, and the Making of Market-Leninism.” In Toby Carroll and Darryl S. L. Jarvis, eds. *Asia after the Developmental State: Disembedding Aut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ật Số 20/2017/QH14 Của Quốc Hội: Luật Quản Lý Nợ Công*[공공채무관리에 관한 법률]. 2017. <https://vanban.chinhphu.vn/default.aspx?pageid=27160&docid=192337>(검색일: 2022. 6. 7.).

- Malesky, Edmund J. 2021. "Enhancing Research on Authoritarian Regimes through Detailed Comparisons of China and Vietnam." *Problems of Post-Communism* 68(3), 163-170.
- Masina, Pietro. 2006. *Vietnam's Development Strategies*. Routledge.
- Nga Đình Thị. 2017. "Quan hệ giữa Ngân sách Trung ương với Ngân sách Địa phương: Thực trạng và một số Đề xuất[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관계: 현황과 몇 가지 제안]." *Tap chí Tài chính*, 661.
- Nghị Quyết Số 19-2016/NQ-CP Của Chính Phủ: Về Những Nhiệm Vụ, Giải Pháp Chủ Yếu Cải Thiện Môi Trường Kinh Doanh, Nâng Cao Năng Lực Cạnh Tranh Quốc Gia Hai Năm 2016 - 2017, định Hướng đến Năm 2020*[2020년을 지향하며 2016~2017년 2년간 시행해야 할 기업 환경 개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무와 해결책에 관한 정부 의결]. 2016. <https://vanban.chinhphu.vn/default.aspx?pageid=27160&docid=184477>(검색일: 2022. 6. 7.).
- Nghị Quyết Số 35-2016/NQ-CP Của Chính Phủ: Về Hỗ Trợ và Phát Triển Doanh Nghiệp đến Năm 2020*[2020년까지 기업경영의 지원과 발전에 관한 정부 의결]. 2016. <https://vanban.chinhphu.vn/default.aspx?pageid=27160&docid=184664>(검색일: 2022. 6. 7.).
- Ngo, Christine and Vlad Tarko. 2018. "Economic Development in a Rent-Seeking Society: Socialism, State Capitalism and Crony Capitalism in Vietnam."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9(4), 481-499.
- OECD. 2014.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4: Beyond the Middle-Income Trap." OECD Development Center and ASEAN Secretariat.
- _____. 2020. "Multi-Dimensional Review of Viet Nam: Towards an Integrated, Transparent and Sustainable Economy." OECD Development Pathways. OECD. <https://www.oecd.org/countries/vietnam/multi-dimensional-review-of-viet-nam-367b585c-en.htm>(검색일: 2022. 6. 7.).
- Pempel, T. J. 2021. *A Region of Regimes: Prosperity and Plunder in the Asia-Pacific*. Cornell University Press.
- Phuong, Le Quoc. 2018. "Vietnam's Low National Competitiveness: Caus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KIEP Working Paper* 18-01.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ttps://doi.org/10.2139/ssrn.3181785>(검색일: 2022. 6. 7.).

- Phuong, Nguyễn Minh. 2014. “Mấy Vấn đề Cần Bàn Thêm Trong Quá Trình Cơ Cấu Lại Hệ Thống Các Tổ Chức Tín Dụng[신용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 논점].” *Tạp Chí Kinh Tế và Dự Báo*[경제와 예보 잡지], February 20, 2014. <https://kinhtevdubao.vn/may-van-de-can-ban-them-trong-qua-trinh-co-cau-lai-he-thong-cac-to-chuc-tin-dung-7769.html>(검색일: 2022. 6. 7.).
- Pincus, Jonathan R. 2016. “Vietnam: In Search of a New Growth Model.” *Southeast Asian Affairs 2016*, <https://doi.org/10.1355/9789814695671-026>(검색일: 2022. 6. 7.).
- Quyết định Số 844-2016/QĐ-TTg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ề Việc Phê Duyệt Đề án “Hỗ Trợ Hệ Sinh Thái Khởi Nghiệp đổi Mới Sáng Tạo Quốc Gia đến Năm 2025*[2025년까지 국가혁신스타트업생태계지원안의 승인에 관한 총리 결정]. 2016. <https://vanban.chinhphu.vn/default.aspx?pageid=27160&docid=184702>(검색일: 2022. 6. 7.).
- Quyết định Số 1362-2019/QĐ-TTg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Phê Duyệt Kế Hoạch Phát Triển Bên Vững Doanh Nghiệp Khu Vực Tư Nhân đến Năm 2025, Tầm Nhìn 2030*[2025년까지의 사유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과 2030년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승인 결정]. 2019, <https://chinhphu.vn/default.aspx?pageid=27160&docid=198093>(검색일: 2022. 6. 7.).
- Reed, John. 2019. “The Rise and Rise of a Vietnamese Corporate Empire.” *The Financial Times*, June 27, 2019.
- Sakata, Shozo. 2020. “Has Nguyen Phu Trong’s Leadership Curbed Economic Reform? Economic Reform Trends in Vietnam.”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15(2), 305-322.
- Tạp chí Diễn đàn Doanh nghiệp[기업포럼 잡지]. 2018. “Những Chính Sách ưu đãi Cho Thương Hiệu Sản Xuất ô Tô Việt - VinFast[베트남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우대 정책: 빈패스트].” *Tạp Chí Diễn đàn Doanh Nghiệp*[기업포럼 잡지], November 5, 2018, <https://diendandoanhnghiep.vn/nhung-chinh-sach-uu-dai-cho-thuong-hieu-san-xuat-o-to-viet-vinfast-139960.html>(검색일: 2022. 6. 7.).
- Thành, Nguyễn Xuân. 2019. “The Evolution of Large Domestic Businesses and Oligarchs in Vietnam.” Presented at the “Vietnam: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October 3. https://acde.crawford.anu.edu.au/sites/default/files/events/attachments/2019-09/04_large_domestic_businesses_and_oligarchs_thanh_nguyen.pdf.

(검색일: 2022. 6. 7.).

- Tổng Cục Thống Kế[통계총국]. 2008. “Báo Cáo Tình Hình Kinh Tế - Xã Hội Quý I Năm 2008[2008년 1분기 사회경제적 상황 보고].” 08/TCTK-TKTH. Tổng Cục Thống Kế[통계총국]. <https://www.gso.gov.vn/du-lieu-va-so-lieu-thong-ke/2019/04/tinh-hinh-kinh-te-xa-hoi-qui-i-nam-2008/>(검색일: 2022. 6. 7.).
- _____. 2022. “Trang Thông Tin Điện Tử Tổng Cục Thống Kế[통계총국 홈페이지].” Tổng Cục Thống Kế[통계총국]. 2022. <https://www.gso.gov.vn/>(검색일: 2022. 6. 7.).
- Trang Thu. 2020. “Chuyển nguồn thu từ cổ phần hóa, thoái vốn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민영화 매각 대금을 국가예산으로 이전].” *Chi tiết tin –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Bộ Tài Chính*[베트남재무부포탈 세부뉴스]. April 27, 2020. https://mof.gov.vn/webcenter/portal/btcvn/pages_r/1/tin-bo-tai-chinh?dDocName=MOFUCM175856(검색일: 2022. 6. 7.).
- Uchimura, Hiroko, and Hisaki Kono. 2012.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s in Vietnam after the 2002 State Budget Law: The Center-Province and the Province-District/Commune Dimensions.” In Hiroko Uchimura, ed. *Fiscal 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ree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Palgrave Macmillan UK.
- UNDP Viet Nam. 2006. “The State as Investment: Equitisation Privatis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SOEs in Vietnam.”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Viet Nam.
- Vasavakul, Thaveeporn. 2019. *Vietnam: A Pathway from State Soci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ân Phạm Thị Tường, and Hải Mai Thị. 2020. “Cổ phần hóa doanh nghiệp nhà nước giai đoạn 2016–2020: Thực trạng và một số khuyến nghị[2016-2020년 국유기업의 민영화: 상황 및 권장사항].” *Tạp chí công sản*[공산잡지], May 7, 2020. <https://www.tapchicongsan.org.vn/web/guest/kinh-te/-/2018/816360/co-phan-hoa-doanh-nghiep-nha-nuoc-giai-doan-2016---2020--thuc-trang-va-mot-so-khuyen-nghi.aspx>(검색일: 2022. 6. 7.).
- Vu-Thanh, Tu-Anh. 2014. “WTO Accession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n Vietnam.” Oxford: University of Oxford, Global Economic Governance Programme (GEG). <http://hdl.handle.net/10419/>

- 196352(검색일: 2022. 6. 7.).
- _____. 2017. “Does WTO Accession Help Domestic Reform? The Political Economy of SOE Reform Backsliding in Vietnam.” *World Trade Review* 16(1), 85–109.
- Vuving, Alexander. 2013. “VIETNAM IN 2012: A Rent-Seeking State on the Verge of a Crisis.” *Southeast Asian Affairs 2013*, 325-347.
-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nters, Jeffrey A. 2011. *Oligarc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2016. “Vai Trò Của Nhà Nước Trong Phát Triển Kinh Tế Việt Nam – Chương Trình Nghị Sự đề Xuất Nhằm Xây Dựng Một Nhà Nước Kiên Tạo để Thúc đẩy Một Nền Kinh Tế Cạnh Tranh và Hiệu Quả Hơn[베트남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의 역할: 보다 효과적이고 경쟁력있는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발전 촉진국가 건설에 관련하여 제안된 의제들].” World Bank Group, Australian Government. https://www.economica.vn/Content/files/PUBL%20%26%20REP/Role%20of%20State_Overview_VN.pdf(검색일: 2022. 6. 7.).
- _____. 2022.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ashington, D.C.: World Bank.

Abstract

Changes in Vietnam's Development Model Since 2008: The Involution of Hybridity

Yong Ky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Jaeseok M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nature and causes of Vietnam's economic crisis during the 2008–11 period as well as the following factional struggles within the Communist Party that resulted in changes in its industrial policy. We argue that Vietnam's development model has been and will remain a hybrid, combining the developmental state in orientation with the highly rent-seeking crony capitalist state in operation. By noting the fact that Vietnam is a market-Leninist regime, which entails multiple contradictions in its ideology, political logic, and factional conflicts that have been reconstructed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the market, we also argue that the recent changes in emphasis toward domestic private enterprises as a key player for industrial upgrading only implies a deepening of its hybrid nature, or the involution of hybridity.

Keywords | Vietnam, development model, hybrid regime, developmental state, rent-seeking